

유학의 경제관 뒤집은 조선 유일 재테크 서적

“사람에게는 항상 똑같은 마음이 없고, 가문에는 정해져 변치 않는 생업이 없으며, 재물에는 본디 입자가 없어 능력이 있는 자가 사용한다. 재물을 잘 운용하는 자는 손자(孫子)와 오자(吳子)가 군대를 다스리고, 제갈량이 나라를 다스리듯 한다. 반면에 재물을 잘못 운용하는 자는 소가 쥐를 잡듯 하고, 호랑이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한다.”(본문 중에서)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재산을 모았을까? 아니 부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 당시에도 재테크에 대한 정보나 서적이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에 대한 인식도 재테크 관련 책도 있었다. ‘해동화식전’ (海東貨殖傳)이 그것. 복인 당파의 영수인 이산해의 직계후손으로 서파 지식인이었던 이재운이 펴낸 책은 부의 획득을 긍정한다.

이번 책은 우리 고전을 알리기 위해 힘써온 안대희 교수의 발굴을 계기로 세상에 나왔다. 안 교수는 300년 가까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해동화식전’을 세심하게 번역했고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

‘병세재언록’의 저자 이규상은 “변화가 무궁하며 붓끝이 굉장하고 빛이 나서 근세 100년 사이에 이런 작품이 없다. 요사이 연암 박지원이 기골한 명가로 일컬어지나 ‘해동화식전’에 견주면 대우가 난상하고

기괴하여 손색이 있다”고 평한다.

먼저 ‘해동화식전’은 조선후기를 배경으로 한다. 시전상인들이 장터를 돌아다니고 물산이 두루 유통되던 시기로, 유수원의 ‘우서’와 이종환의 ‘택리지’ 그리고 박제가의 ‘북학의’와 같은 책들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조선 팔도 물산을 정리한 책들도 널리 읽히던 무렵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은 강력한 유교 사회였다. 사대부들은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됐으며 상업은 천한 직종으로 치부됐다.

이 즈음에 등장한 ‘해동화식전’은 유학의 경제관을 과감하게 뒤집는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군자는 의로움을,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논리가 ‘군자도 이익을 추구하고, 소인도 의로울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체된다.

책에는 모두 아홉 편의 상인 열전이 실려 있다. 자수성가한 이들부터 거저까지 신분도 천차만별이다. 저자는 부자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치산(治山)을 잘하는 사람은 재물을 크게 벌리고, 그다음 사람은 아끼고 절약하며, 그다음 사람은 변화를 일으켜 흥통하고, 그다음 사람은 고생을 참고 근면하게 일한다. 아무 수완이 없는 사람은 거저로 산다.’

그 가운데 이재운은 예췌 부를 일군 사람들이야말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다. 부자의 미덕을 예찬하고 빈자의 악덕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부



해동화식전 이재운 지음·안대희 옮김

자들은 탐욕과 부정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욕망과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추구한다.

“저 진옥은 여왕의 필부이자 시정의 자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세가 장수와 재상을 높였고, 사람들이 시기하여 몰래 해코지하려 들지 않았다. 사치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기도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 사이가 먼 사람에게도 은덕을 베풀었고, 이웃나라까지 명성이 났다. 이야말로 ‘치산(治山)을 잘하는 사람은 재물을 크게 벌린다’는 사례이다.”

이재운의 주장은 조선 후기 중상주의적 경제론이 만개하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지만 당대를 변화시키는 마중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서자 출신 지식인이 던진 경제경영론으로

인식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책은 시대를 거스른 중상주의적 경영론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남다르다. 팔도 물산을 정리한 물산기세 편도 함께 수록돼 있어 당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각기 자기 일을 열심히 하여 즐겁게 이윤을 추구하느니 마치 바삭 마른 장작에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는 것과 같다. 밤으로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각자 애지중지하는 재물을 내놓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제하게 굴거나 아까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니 이치로 보아 자연스럽게 누구나 욕망을 추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휴머니스트·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海東貨殖傳

작은마음동호회

윤이형 지음

2019년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윤이형의 네 번째 소설집 ‘작은마음동호회’가 출간됐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표된 11편의 단편이 묶인 책에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윤이형 소설이 수록돼 있다. 작가는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두 장점,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명민한 통찰력과 판타지와 SF를 넘나드는 한계 없는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결합한다.

표제작 ‘작은마음동호회’는 페미니즘 논쟁에서 뜨거운 기혼/비혼 여성 간의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가사와 육아에 대부분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기혼 여성들이 정치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모임을 만든다. 그들은 ‘작은마음동호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그 결심을 책으로 묶어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마흔셋’은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장녀 ‘재경’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자 치밀하게 인생을 계획한 차녀 ‘재운’, 그리고 양모로 세상을 떠난 엄마의 이야기가 교차돼 펼쳐진다. 작가의 시선은 현실의 복잡미묘한 쟁점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일상에서 감내해야 하는 끈질긴 고민부터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의 문제까지 귀 기울인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비극에서 출발한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이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로 변주되는데 의미가 있다.

구별도 소설가는 ‘갈밭이 깊고 지나간 땅을 어떻게든 견고 가꾸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이 문장들을 풀어내고 동시에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이 책을 내 책상에서 되도록 멀찍이 밀어서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감춰두고 싶었다. 그가 피로 쓴 이 문장들이 나의 가난한 글이 부끄러워 차마 아무 말도 없을 수가 없다’고 평했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00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

김형석 지음

“때가 오면 누구나 야간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열차는 그대로 달리기 때문에 내린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이 인생의 야간 열차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내리고 싶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같은 순간에 죽음을 택했다고 해도 열차에서 내리면 모두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공존(共存)이란 삶이 허락된, 열차 안에서만의 일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야간열차를 탄 채 달리고 있다.”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데카르트의 말을 빌려 ‘나는 사랑하는 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펴낸 ‘100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는 잠깐 삶의 길, 인생의 의미 등을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 책은 그가 고통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바치는 사랑과 영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원한 것을 찾고 그것을 사랑하는 일이 삶의 과제였던 젊은 날의 고통한 대화가 담겨 있다. 그는 “젊은 시기에 영원한 것을 예뻐보지 못했다면 참된 인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랑은 진리, 아름다움, 선으로 향하는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애의 완성이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불행은 무엇일까? 저자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표준과 의의를 제3자에게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타인이 정한 삶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자아를 지키는 삶을 위해 지녀야 할 자제는 무엇이며 그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지 담담하게 들려준다.

귀 교수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기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홀로 있는 당신에게’로 구성된 세가지 테마로 100년 인생의 비밀을 친근하게 들려준다. 100세 철학자들의 재치 가득한 이야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열림원·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음의 혁명

브래드 톨린스키·앨런 디 퍼나 지음·장호연 옮김

일렉트릭기타는 명실상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큰 상징 중 하나다. 자유와 위험, 반항, 쾌락 등 이미지를 한 몸에 담은 이 악기는 근사한 외양과 함께 ‘우주술 소리’에 흔히 비유하는 맑은 소리부터 기관총·폭격기 같은 불길한 소리까지 나타내는 전례 없는 표현 범위 등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 변화무쌍한 악기의 등장은 블루스부터 록, 메탈, 포스트모던 예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 음악이 터져나오는 시발점이 됐다.

베스트셀러 음악 잡지 ‘기타 월드’ 편집장 브래드 톨린스키와 음악 칼럼니스트 앨런 디 퍼나가 일렉트릭기타의 발전사를 통해 대중음악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 ‘광음의 혁명’을 펴냈다.

책은 12개 장에 걸쳐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렉트릭기타의 발달사를 짚는다. 최초의 양산형 일렉트릭기타 모델 ‘프라임엔’을 만든 조지 비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책은 레스 폴, 레오 펜더, 찰리 크리스천 등 유명 기타 메이커들의 손에서 탄생한 기타 모델들의 탄생 배경과 함께 이들이 어떻게 대중음악을 변화시켰는지 세밀하게 살펴본다. 또 지미 헨드릭스, 벤 헤일런, 제프 벡, 스티브 바이 등 연주-활용법을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기타 모델을 개발해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아티스트의 활약상도 볼 수 있다.

본문에는 자서전,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에 남은 당시 아티스트들의 발언과 기록을 함께 담아 생생함을 더했다. 기타를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각 부품별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알기 쉽게 풀어냈다.

〈뮤진트리·2만2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19-2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배움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모집

1 모집과정

전공	운영일시	과목당 모집인원	과목당 수강료	기타사항
미용학	주간(화, 수) 09:00~18:00(15주)	30명	20만원	
아동학	주간(월, 화, 수) 09:00~15:00 (15주)	40명	15만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수 및 대면교과목 운영
사회복지학	야간(화, 수, 목) 17:00~23:00 (15주)	40명	15만원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전공 및 자격 취득

- 미용학 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미용사 면허증 취득)
-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아동학 전공(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4 모집일정

- 접수 및 등록기간 : 2019년 7월 22일 ~ 9월 6일
- 교육기간 : 2019년 9월 9일 ~ 12월 20일 / 15주

5 접수 및 문의

- 950-3583~6 (평생교육원 행정실)
- 주소 : (우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동관 1층 3115호
- 홈페이지 : http://always.kwu.ac.kr

■ 비학위과정 모집

1 모집과정

■ 직업능력 교육과정

강좌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부동신경매설무	목	19:00~21:00	20만	20	김찬수	
2 약용식물자원관리사	화	19:00~21:00	15만	20	양차열	
3 한자한문지도사(중급)	금	09:10~13:00	36만	15	선병공	24주
4 한자한문지도사(초급)	토	09:10~13:00	36만	15		
5 마이크로(국가자격증)	화	18:00~21:00	30만	20	손혜영	
6 네일(국가자격증)	화	18:30~21:30	30만	20		
7 네일(아트&창업)	목	18:30~21:30	30만	20	정다희	
8 실버요리지도사 2급 자격과정	월	18:30~20:30	20만	15		최경희
9 민요총체지도사 2급 자격과정	목	18:30~20:30	20만	15		
10 미래 4차 산업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독서지도사	화	10:00~13:00	17만	20	심명자	
11 대화기술코치 독서토론티도사	수	10:00~12:00	18만	20	김태숙	
12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하는 신나는 드론 축구 (2인1조)	금	18:00~20:00	15만원	15	김태중	8주
	토	10:00~12:00				

2 모집일정

- 2019년 7월 22일 ~ 9월 6일

3 접수 및 문의

- 950-3583~3586(평생교육원 행정실) • 홈페이지 : http://always.kwu.ac.kr

■ 문화예술 교육과정

강좌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화해정식(플로리스트)	수	10:00~12:00	20만	20	임은주	
2 한국무용(호남살풀이)	수	10:00~12:00	20만	20	백미성	
3 한국무용(직물반)	수	13:00~15:00	20만	10	이재방	
4 검도와 호신술	화/목	18:00~20:00	20만	30	이재방	
5 난타	화	19:00~21:00	15만	15	채준례	
6 유희&수채화	월	09:30~12:30	17만	12	문명호	
7 쉽게 배우는 연필인물화	목	10:00~12:00	17만	12	박찬휘	
8 리듬과 함께 활력 충전 "리인댄스"	월	17:00~19:00	15만	20	여순심	10주
9 힐링요가&필라테스	수	17:00~19:00	15만	20	여순심	10주
10 서예(초급)	금	10:00~13:00	17만	15		
11 서예(중급)	월	10:00~13:00	17만	15		
12 멋진 여행과 사진	주간	화	10:00~12:00	15만	20	유태준
	야간	화	19:00~21:00	15만	20	
13 한국전통춤(중급)	목	14:00~15:30	15만	20	박선옥	
14 한국전통춤(중급)	화	14:00~16:00	18만	20		
15 ★여행의 재미를 더해 주는 여행 스케치	수	10:00~12:00	15만원	12	박태영	
		18:30~20:30	15만원	12		
16 ★달빛 아래 허모니카	기초 심화	목	18:30~20:30	15만원	15	김재철